

무주 적상초 본관 개축공사 관련 미준공 건물서 수업강행 '논란'

12월 18일 준공 예정... 학생들 안전사고 위험 무방비 노출 무주교육지원청 "사용승인 난 상황·잘못된 부분 시정할 터"

무주군 적상초등학교에서 개축공사 준공하기도 받지 않고 수업을 강행해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현장은 공사장비와 분진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관 개축공사는 예산 48억8,000여만 원이 투입돼 시공사인 S건설이 학급 교실, 도서관, 돌봄 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기로 해 지난 3월14일 착공, 오는 12월18일 준공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현재 공중물이 낮아 공기를 단속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학교 측과 시공사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기존건물 철거와 부대토목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준공감사도 하지 않은 건물에서의 수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교사주변은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현장의 각종 건축 폐자재와 주변 바닥의 유독 폐인 포토 홀 등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었으나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려



하자 학교 측은 공사현장의 은폐에 급급하면서 학교 측과 삼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지난 11일 학교를 함의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다시 방문해줄 것을 제안 받아 협조했지만 학교교장이 교육을 갖는 통보만 할 뿐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만 댔다"라며 "이 학교 교사로부터 교장이 따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왜 방문을 했느냐.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다. 무엇을 따지러 왔느냐는 등 학부모를 무시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관리감독청인 무주교육지원청은 시공사 측으로부터의 통정기 공사 중지요청을 받아 줄 것으로 예상

돼 '업자 비주기'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형 이 모씨는 "비록 동절기라고는 해도 조경수나 잔디는 별 무리 없이 잘 자라 문제가 없고 준공일자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사 중지 요청은 지체보상금을 피해 가려는 시간벌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무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난 상황이고 구 건물 철거에 이어 운동장 조성 등의 공정을 이어 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속건물에서의 수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후 잘못된 부분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조치와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토탈관광 기반구축

탐방로 정비·주차장 조성 등 지역경제·관광활성화 기대

안 마이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전국에서 진안을 찾는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

군은 지난 주말과 휴일 진안 마이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3만7,000여명이라고 밝혔다. 주말과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붉은 단풍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마이산을 찾아오며 따라 지난 10월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이산 관광객 증가로 인해 북부 신설 상가 음식점들은 흥산축제에 이어 대목을 맞고 있으며 북적이는 관광객들로 음식점은 자리 잡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이미 진안군은 제1의 관광명소인 마이산 관광개발을 위해 10여년 전부터 마이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예산과 전라북도 등부권발전사업을 마이산에 집중투자하면서 관광명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계획 1단계로 '북부권 마이산 개발'을 위해 북부 상가와 주차장을 마이산 관광단지 진입부에 이전하고 상가와 주차장을 명인명품관 조성생태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된 사양재 생태수변공원, 마이산 미로공원, 북부주차장 신설, 마이산 관광정보센터, 마이동 테마공원 등이 완료되어 흥산축제 및 트로트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북부권 마이산 개발의 성공적인 개발계획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마이산 개발계획 2단계 추진예정인 '남부권 마이산 개발'을 위하여 마이산의 역사적 가치와 기반 시설정비, 다양한 등산코스, 역도드림

등 신비함을 주제로한 마이산자연치유신비체험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를 위한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11월초에 통과하여 마이산 남부권개발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이로써 마이산은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변모하게 되어 지역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모악산에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완주군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도립공원 모악산에서 전북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변 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건조기 산불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15일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관계 공무원,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원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센터, 안전모니터봉사단, 패트론티안주군지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현수막과 어깨띠, 피켓을 이용하여 모악산 진입 도로에서부터 등산로 입구까지 가두 행진하며 모악산 관광객 및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리

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행락철 안전사고 및 건조기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관계자 등 안전점검반은 모악산 주변 상가에 대하여 가스누출, 전기 누전 여부, 전기차단기 정상 작동여부, 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김홍기 부군수는 캠페인 이후 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과 함께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에 대한 안전점검에 동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김부군수는 "안전사고는 순간의 방

심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며 "행락철 안전사고 및 산불 예방에 군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 기초번호판 스티커 부착

장수군은 도로변에 설치한 기초번호판에 "위급상황↑신고주소"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구조요청이 필요한 경우 도로명 주소로 신고하면 즉시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사고에 대처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집수리, 부르면 달려갑니다

완주 봉동읍, 지역자활센터·스웨코와 협약체결

완주군 봉동읍은 15일, 완주지역 자활센터와 부설 자활기업 스웨코와 릴레이로 업무협약 체결하여 복지허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완주지역자활센터 김진왕 센터장과 부설 자활기업 스웨코 김경진 대표가 참석하여 독거노인, 조손가정 및 장애인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집중수리사업에 따른 전문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자활기업 '스웨코'는 지역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발달이 되어 온 완주지역자활센터의 부설기업으로 지난날 10월이 첫 간판을 걸었다.

업무협약 체결을 맺은 스웨코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집을 고쳐주는 재능기부 봉사 사업 시작을 알렸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공적부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독거노

인들은 보일러 및 화장실을 수리하거나 전기시설을 교체해야 하는데도 수리업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스웨코와의 협약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맥가이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진왕 완주지역자활센터장은 "행정적 절차나 기준에 맞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많아 안타까웠는데 이번 협약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복한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택 봉동읍장은 "겨울을 앞두고 집 안 구석구석 손발 곳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아들보다 더한 효자 노릇을 해줘서 감사드린다. 이번 협약체결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할 겨울을 지낼 수 있길 바란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군의회 정례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사진)는 16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53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17일 집행부로부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이후 18일부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신통방통(新通放通)을 통한 자료수집, 현장조사와 통계조사, 시사점을 분석하여 예리한 질문과 정책대안 제시로 다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2016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기 위한 2017년 본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12일에는 무주군 군정질문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군정질문이 예상된다.

이어 12월 15일 각종 안전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2016년 무주군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 하게 된다.

유승열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추진한 군정을 총결산하고 내년도 군정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생산적인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지방도·군도 등 8개 노선 점검

무주군은 동절기 도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지방도 49호선을 포함한 4개 노선과 군도 4개 노선 등 총 8개 노선 162km구간으로, 도로장비원 등 제설요원 50여 명이 노선 별로 자재와 도로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제설차량 9대를 비롯해 제설 삽을 부착한 읍면 청소차량 5대와 트랙터 9대를 확보했으며, 군도와 지방도, 군도, 마을간길과 진입로 등 총 250곳에 제설함을 설치해 모래 7,500

m³와 염화칼슘 512톤, 소금 1,200톤 등의 제설자재를 구비해 놓은 상태다.

군 정성희 건설행정 담당은 "청 내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꾸리고 앞으로 4개월 간 교통취약 구간과 교통무질 예상 지구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제설장비 점검과 정비, 제설자재 확보, 도(道) 경계 구간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한 겨울나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

진안군은 2018년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한 진안 만들기 위해 나섰다.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송유, 난방수관 등 7대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자지도도를 만드는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에서 나머지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구축해 공동으로 활용된다.

2014년부터 진안군 도시지역 내의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등 공간정보DB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섰던 진안군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4억(국비 60%, 군비40%)으로 2018년 까지 3개년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지는 진안읍 도시지역 365.16km(도로 134.90km, 상수도 106.26km, 하수도 124.00km) 구간으로 구축이 완료되면 국토부 표준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돼 통합관리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블리스

무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무주군이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건설업과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6곳과 대기오염 배출시설 23곳으로, 12월 말까지 환경관리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2개조 4명)이 이들 사업장을 방문해 △배출·방지시설 적정 가동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방진덮개 사용, △삼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와 △집진시설 설치, △수송차량의 세륜·측면삼수 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 이지역 환경관리 담당은 "처벌 위주의 단속만으로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어 예방 차원의 행정서비스 확대에 진행되고 있다"며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깨끗한 무주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에 대한 행정정보 안내와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는 것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도로 설해대책 점검

최유득 장수군수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을 맞아 장수군 도로관리사무소를 방문 설해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올해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자재보관창고 1동, 관리사 1동을 신축했다. 또, 관내도로 16개노선 617km의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해 제설제 2,800톤, 제설장비 76대, 인員 95명을 확보하고, 2016년 11월 중순부터 2017년 3월 중순까지 4개월간 설해대책 종합상황실(건설경제과)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경찰, 교통안전시설 점검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번안면 논실삼거리에 있던 남장수 톨게이트가 동남원 톨게이트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교통안전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남장수 톨게이트가 광주-대구고속도로 확장 개통에 맞춰 폐쇄되고 동남원 톨게이트가 신설된 후 남장수 톨게이트가 있던 자리와 논실삼거리의 교통안전시설이 현재의 도로 상태와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장수경찰서와 남원국도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3개 기관이 공감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도로교통공단의 진단을 받아 교통안전시설을 추가하기로 협의 하였다.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잘못된 교통안전시설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즉시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장난감도서관 개관

진안군 아동들의 오랜 열원이었던 장난감도서관이 15일 청소년수련관 별관 1층에 개관했다.

이날 개관을 기념해 특별한 개관식 없이 이항로 군수, 방명석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아동복지 관련 단체장들이 모여 간단한 다과회를 열고 장난감도서관을 둘러보며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등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첫날 회원가입 후 장난감을 대여 받은 주민은 "장난감을 쉽게 싫증내는 아이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난감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장난감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무척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군은 장난감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대여 및 기증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추가로 장난감을 비치할 계획이며, 추후 추가 구입분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여 희망 품목을 작성하는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항로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이을 바란다"며 "진안 인구의 소수를 차지하지만 미래희망 아동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300여종 600여점의 유아용품, 보드게임 및 스포츠 용품을 구비중이다. /진안=우태만 기자